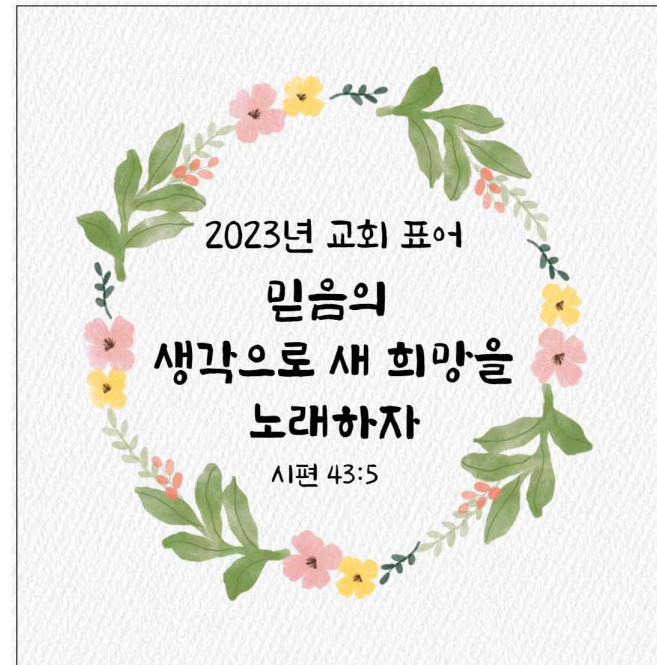


교회소식

- ▶ **환영:**
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.
- ▶ **행사:**
05/14/23 (주일): 어머니주일
06/04/23 (주일): 제직회, 남/여선교회 월례회
- ▶ **감사:**
 - ♥ 오늘 친교를 준비해주신 남선교회께 감사를 드립니다.
친교실에서 친교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
 - ♥ 여선교회에서 상록회원분들께 (천방육목사님, 천정자사모님, 조성훈장로님, 이윤정권사님)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
 - ♥ 어머니날을 위해서 카네이션 코사지를 만들어주신 김명숙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.
- ▶ **알림:**
고 조정원권사님 천국환송예배 일정:
2023년 6월 3일 2:30 PM Hollywood Hills Forest Lawn
Old North Church (Red Chapel)
6300 Forest Lawn Dr. Los Angeles, CA 90068
- ▶ **합심기도 제목:**
 1. 새 가나안 장로교회의 부흥을 위해서
 2. 조성훈장로님: 주의 일을 감당 하실 수 있는 건강주시옵소서
 3. 김왕증: 앞길을 주님께 맡기오니,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주시옵소서
김예림: 주님의 크신 은혜가 새 가정위에 늘 함께 하시고, 산모와 아기(축복)가 늘 건강하게 하옵소서
 4. 이윤정권사님: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

지난 주 헌금 드리신 분들	
십일조/주정/주일	이 천, 이크리стин, 이장욱, 이정혜, 김병권, 김명숙, 하효경, 이윤정, 김정목, 지미경, 이샘, 무명
감사헌금	이 천, 이크리стин, 이장욱, 이정혜, 지미경, 이노엘



대한 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(PCIGA) 새 가나안 장로교회 NEW CANAAN PRESBYTERIAN CHURCH	6338 N. Figueroa St. Los Angeles, CA 90042 ☎ (323) 256-7575
담임목사: 이 천	
시무장로: 조성훈 이장욱 반주: 김진경	

주일 예배

교독문 98. 어버이주일

12:30 PM

인도: 이 천 목사

경배와 찬양		다함께
기원		인도자
※찬송	579장 (통 304장)	다함께
※성시교독	교독문 98. 어버이주일	다함께
※신앙고백	사도신경	다함께
찬송	199장 (통 234장)	다함께
대표기도		김병권집사
오늘의 말씀	출애굽기 2:1~6	인도자
찬양		이장욱장로
설교	어머니의 위대함	이 천 목사
기도		설교자
헌금		하효경집사
※봉헌찬송	634장 (통 70장)	다함께
※봉헌기도		인도자
교회소식		인도자
※인사		다함께
※찬송	54장 (통 61장)	다함께
※축도		이 천 목사

※표는 일어서실 수 있는 분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

봉사와 섬김					
#	구분	대표기도	찬양	헌금위원	친교
19	05/07/23	이장욱	다같이	하효경	교회(창립 49주년)
20	05/14/23	김병권	이장욱	하효경	남선교회
21	05/21/23	이정혜	하효경	김명숙	이운정
22	05/28/23	하효경	김병권/김명숙	이정혜	김진경
23	06/04/23	김명숙		하효경	이운정
24	06/11/23	이장욱			이장욱/이정혜

네 부모를 공경하라

- ◎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

내 아들이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

- ◎ 이는 네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의 금 사슬이니라

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

◎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

- ◎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. 아멘

성경말씀: 출애굽기 2:1~6

- 1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
- 2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
- 3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 가 갈대 사이에 두고
- 4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멀리 섰더니
- 5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
- 6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. 아멘